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2020년 11월 22일 (제 1969 호)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제키엘 34:11-12, 15-17 제2독서 코린도1서 15:20-26.28 복음 마태오 25:31-46

◎말씀 < 종말론적 삶 >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전례력으로 올 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느님의 계획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으로 완성된다는 종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관심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서식한 이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도 성서상의 초자연적 계시도 우리의 의문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를 시공의 개념으로 알기란 어렵겠지요!

전통적 신학은 사후세계에 어떤 일련의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사심판과 공심판을 거쳐 천당, 연옥과 지옥으로 진행되는 물리적인 종말로서, 세상이 그 마지막 굽이를 돌아 찾아오는 어떤 천지개벽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현대신학은 종말의 세계를 물리적 종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시, 공간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장소개념이 아닌 상태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천당은 하느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삶, 현세에서 하느님을 선택한 삶으로서 선행이나 사랑의 친교를 통해서 체험되는 용서, 평화, 행복 등이 그 천국의 표징이라 생각합니다. 지옥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삶으로 하느님과 공동체와 이웃으로부터

멀어져 이탈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버린 굳어진 삶이고, 죄를 지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고통이 지옥의 상징이 아닐까요? 연옥은 하느님을 뵈게 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씻는 정화의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천국의 기쁨 곧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느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희망과 구원이요, 지금 여기서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나의 미래는 절망이요 심판이리라!

'지금울, 현재를 살아라!' ,한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 순간이다 ('화염경'),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편') 없어도 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 자체가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도록 회개하며 살아라! '

신앙인의 눈에는 영원이 희미하게나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은 천국의 가치(Kingdom value)를 살면 영원을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눔, 용서, 화해, 일치, 사랑 등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고 발견해 내며 살아가는 식별(Discernment)의 영성이 현대 신앙인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를 사는 것이요 구원을 사는 것이며 영원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영원을 미리 앞당겨 커다란 희망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일 자	전례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 24일 (화)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교무금	\$ 2,760.00
			주일헌금	\$ 638.00
11월 25일 (수)	연중 제34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 60.00
			성소후원	\$ 720.00
11월 26일 (목)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 720.00
			초봉헌	\$ 1,022.00
11월 27일 (금)	연중 제34주간 금요일		성물방	\$ 138.00
			ACA Rebates	\$ 175.00
11월 28일 (토)	연중 제34주간 토요일		합 계	\$ 6,233.00
11월 29일 (일)	대림 제1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66명
교무금 봉헌자	구준모. 이수동. 김창영 (11-12월) 국부자 (9-12월) 조영숙 (6-12월) 지영욱 (10-11월) 김운태 (11월) 김길록 (12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교계제도 (사제님? 신부님?)

‘성직자’ 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당에서 만날 수 있는 ‘신부님’ 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직자의 호칭은 참 다양합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몬시뇰, 사제, 부제... 평소엔 ‘신부님’ ‘주교님’ 이라고 부르는데, 미사 중에는 ‘사제’ 라고 통일이 되어 있으니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교계제도(敎階制度)’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각 품계(品階)에 임명된 성직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직자들이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계층을 이루고 제도적인 질서에 따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계는 넓은 의미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직자들의 위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계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품권(聖品權, power of order)에 따른 구분은 서품에 따라 주교, 사제, 부제의 세 품계가 있는데 성사 집행이나 전례와 관련됩니다.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n)에 의한 구분은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의 권한에 따른 위계입니다. 사목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 **교황(敎皇)** :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로마 교회의 주교입니다.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 주교단의 단장이며 바티칸 시국의 원수입니다. 교종(敎宗)이라고도 부릅니다.
- **추기경(樞機卿)** : 교황의 최고 협력자이며 교황청의 각 성(省)과 기구의 장관이나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습니다. ‘콘클라베’ 라고

불리는 교황 선출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 **주교(主教)** : 성품성사의 최고 품계이며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여 교황을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을 이룹니다. 교구나 지역 교회를 사목하며, 교구장 주교, 부교구장 주교(교구장 계승권이 있음), 보좌 주교로 임명됩니다.
- **몬시뇰** : ‘나의 주인’ 이라는 뜻을 지닌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칭호로서, 보통 교구를 다스리지 않는 교황청 고위 성직자나 주교품을 받지 않은 덕망 높은 성직자가 교황에게 몬시뇰 칭호를 받습니다.
- **사제(司祭)** : 성품성사의 두 번째 품계이며, 주교의 협력자로서 미사를 거행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부(神父)는 ‘주교가 아닌 사제’ 만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교회법에서는 성품성사를 주교품, 탁덕품, 부제품으로 구분합니다.
- **부제(副祭)** : 성품성사의 가장 낮은 품계로서 성직자 위계의 시작입니다. 사제를 도와 세례, 혼인성사를 집전하고 강론, 성체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미사 중에 부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또한 부제의 영과 함께’ 로 응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타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박판기세실리아, 제임스머케이 영혼	국마리아	생	감사미사	최진영.말따
연	낙태아이들과 연옥영혼	김진영.말따	생	장사도요한, 김도철베드로 가정	최진영.말따
연	김베르나르도의 영혼	김마리아	생	이인숙세실리아 영육건강과 가정	유가브리엘라
연	김베르나르도의 영혼	김모니카	생	박창일헨리코 영육건강	유가브리엘라
연	김베르나르도의 영혼	윤수잔나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연	김베르나르도의 영혼	박글라라	생	(생일)도미니카한 영육건강	토마스한
생	이호순.수산나 영육건강	유가브리엘라	생	(생일)서주연.마리아 영육건강	소화데레사회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임실비아	생	임채봉안드레아.실비아 영육건강	구비아

간  
장  
증  
지

◎바보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주 잊고 사는 것은  
건방지게 그 행운 늘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자격은 하나 없으면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  
바보처럼 내 오만의 죄까지 잊고 산다는 것

마종기.노렌조 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b>에어컨 수리</b></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최병엽공인회계사</b></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의사</b></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b>게스관광</b></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a href="http://www.guesstour.com">www.guesstour.com</a></p>	<p><b>Suzie Hair World</b></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b>Print N Signs</b></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a href="mailto:PrintsNsigns16@gmail.com">PrintsNsigns16@gmail.com</a> 9336 La Riviera Dr. #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p>성당에 제출할 <b>CHECK 발행하실 때</b></p> <p><b>Payee to: St.J.H.C</b></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1. 주일 야외미사

최근 COVID-19 재확산에 따른 교구방역지침에 따라 당분간 10시 교중미사가 야외미사로 집전됩니다. 미사후 자발적으로 정리정돈에 참여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평일 온라인미사 안내 (문의:각구역장)

일시:평일 오후6시 (동영상-오늘 평일미사)  
 평일 오후7시30분 (라이브-내일 평일미사)  
 금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미사 없습니다.  
 집전:김원현.베드로 본당주임 신부님  
 온라인 미사참례를 통하여 영적갈증을 해소하고 신부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3. 꾸르실리스따 온라인교육 참가신청 (29일까지)

목적:코비드19 펜데믹으로 영적어려움을 겪고있는 꾸르실리스따들을 위한 영적 재충전  
 기간:12월3일~5일, 저녁7시~10시  
 지도신부님:김현국요한사도(트라이벨리신부)  
 장소:Zoom을 이용한 OnLine Program  
 주관:북미주 서중부 꾸르실료 사무국  
 참가비:무료(빨랑카) 문의:이상인.시메온 간사  
 본당 꾸르실리스따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4. 주보광고(2021년) 신청하세요

금액:\$150/1년 (외부:\$200/1년) 신청:사무실

5. 매일미사(2021년) 신청하세요

금액:\$50/1년 신청:사무실

6. 마스크 필요하신분 요청하세요(사무실)

(어린이용 KN95 마스크)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 은 나의 목 - 자, 아쉬울 것 없 어 라

전례봉사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2)	대림제1주일(11월29일)	대림제2주일(12월6일)	대림제3주일(12월13일)
복사	최준우.루카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